

학문목적 한국어 어휘교육을 위한 전공 어휘 사용 양상 분석

- 자연계열 교육용 전문어휘 선정을 중심으로*

이 민 우

Abstract

Lee MinWoo. 2013. 10. 31. **An Analysis of Academic Words Patterns for Korean Learners : Focused on Department of Natural academic vocabulary selection.** *Bilingual Research* 53, 183-216.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foundation in regards to vocabulary education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to academic purposes, based on an analysis of the use patterns of vocabulary in natural science texts. Towards this end, this study used natural science related corpus of 800,000 words scale established through the 21st-century Sejong Plan, more than 60,000 nomenclature list and a list of more than 6,000 vocabularies for Korean language learning present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for analysis. From the analysis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frequency of use of common nouns, adjectives and conjunctive adverbs are higher in test of natural sciences compared to general text, and especially the frequency in use of foreign languages is significantly high. In text of natural sciences, the use of vocabularies for Korean language learning accounted for 61.9% (5,789 kinds), and nomenclature 16.7% (5,605 kinds). From these figures, high-frequency nomenclature (more than 100 times) was more than 279, which constituted 10% of the entire text, and more than 104 kinds of other high-frequency words accounted for 5%. The ratio of the predicate used in full-text was 28%, and from this figure, more than 2,000 kinds of high-frequency predicate accounted for more than 90% of the total predicate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C-B00366]

use. Among the predicate, high-frequency predicate which does not belong to learning vocabularies and nomenclature was more than 40 kinds, which constituted 1.2% (4.2% of the use of the predicate) of the entire text. In this study, more than 279 kinds of academic vocabulary candidates were presented. And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the foundation of vocabulary selection and learning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of academic purpos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KAP(Korean for Academic Purpose: 학문목적 한국어교육), Vocabulary education(어휘교육), Academic vocabulary(학술어휘), Technical vocabulary(전문어휘), Nature department(자연계열), Corpus Analysis(말뭉치 분석)

1. 서론

어휘 교육은 언어 표현과 이해의 기반을 담당하는 것이다. 특히 대학 수학에서 전공 분야별 용어에 대한 이해는 성공적인 대학 수학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도구로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대학(원)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학습자들은 일반적인 한국어 표현 능력은 부족하지 않다고 여기면서도 대학 수학 능력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 수학 중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전공과 관련된 서적과 강의의 이해하기 어렵다는 데 있는데 이는 전문 어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김유미·강현화 2008 : 2). 현재 우리나라 유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부에 유학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공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점도 전공 어휘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근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외국인 대학생 유치 정책에 힘입어 국내 대학(원)에서 유학 중이거나 차후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학생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¹⁾. 하지만 외국인의 유학생의 대학 수학 능력 향상을 통해

1)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각 대학(원)에서 수학하는 유학생들은 2003년

유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과거에 학업이나 취업과 같이 특수한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들이 많지 않아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의사소통 중심의 일반목적에 위한 학습자들에게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며, 한국어 학습자들의 학습 목적이 다양해진 이후에도 이들을 위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인문계열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자연계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형편이다²⁾.

전공과 관련된 전문적인 어휘를 제시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실제 쓰임이나 일반어휘와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은 학문목적 학습자들을 위한 어휘교육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이 본격적인 전공 진입 이전에 자신이 학습할 전공계열에서 이용되는 기본적인 전문 어휘를 익힘으로써 성공적인 전공 학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본격적인 전공 진입 이전의 외국인 유학생이 원활히 전공분야 대학 수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연계열 말뭉치에 사용된 어휘를 분석하고 교육을 위한 전문어휘를 선정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2,314명에서 2012년 86,878명으로 증가했으며 이중 학위과정생은 2012년 현재 60,589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학문목적에 가진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일반적인 목적을 가진 학습자와는 다른 교육 내용과 학습 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2005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을 위해 가르쳐야 할 내용이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 전 언어 영역에 해당하다 보니,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 2) 2012년도 교육통계자료에 따르면 학위과정별 유학생 인원은 인문계 41,591명으로 70%를 차지하지만 자연과학계 4,626명 의학계 681명 등 자연계열 유학생 규모는 전체인원 대비 9%로 무시할 수 없는 숫자를 보여준다.

2. 선행연구 검토

국내·외 제2언어 교육 분야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 실생활 위주의 일반목적의 교수법이 중요한 방법론으로 자리 잡으면서, 학문목적의 제2언어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져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 근래 대학(원) 수학 목적의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위한 학문목적의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방법과 내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김유정 1999, 김청자 2000, 박준언 2000). 김정숙(2000)은 국내 대학(원)에서 수학 중이거나 진학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학문목적의 교육 과정 설계를 위한 학습자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고, 일반목적의 구어 중심 의사소통식 교육을 받은 학습자들은 일상어나 구어에서는 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수학에 필요한 언어 기능은 많이 부족하며, 학문목적의 외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특화된 교육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해영(2001)도 외국인 대학(원) 입학생의 증가 추세와는 달리 졸업률이 상당히 낮은 사실을 지적하고, 이들을 위한 대학 내 교육 과정과 내용을 제시하였고, 김민재(2004)는 학습자 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학문목적의 외국인을 위한 대학 예비교육과정을 설계하기도 하였다.

영어권 국가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수학을 돕기 위한 영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언어 영역별로 세분화되어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체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문목적 어휘 선정과 교육에 관한 연구는 말뭉치를 중심으로 어휘 목록을 제시한 Champion과 Elley(1971), Lynn(1973), Ghadessy(1979)가 있으며 Xue와 Nation(1984), Coxhead(2000)에서 교육용 전문 어휘 목록을 제시하였고, 이후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Horst와 Cobb(2001), Cobb(2007), Haywood(2007a, 2007b) 등과 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학문 어휘 사이트들도 개발되고 있다(김유미·강현화 2008: 5).

국내의 전문 학술어휘와 관련된 연구는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 된 이후 어휘 선정과 교육 방안 제시라는 두 측면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교육용 기본어휘 선정에 대한 기본 연구는 조현용(1999), 임철성(2002) 등에서 제시했으나 일반적인 어휘로서 학문목적 교육용 어휘는 아니었다. 학문 목적 전공어휘 선정에 대한 연구로 김남예(2005)는 인문계열을, 강지현(2006)은 상경계열을, 김유미·강현화(2008)는 한국어, 문학, 경영, 컴퓨터 공학을 중심으로 하는 학술텍스트를 기반으로 전문 어휘를 추출하고 목록화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자연계열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³⁾ 또한 전공어휘 선정에 대한 연구 대부분이 연구목적에 의한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말뭉치를 수집하고 목록을 선정하는 데에만 치중하였기 때문에 실제 전문어휘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일반 어휘와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말뭉치를 이용하여 어휘 사용상의 특징을 파악하고 자연계열 학문목적 한국어 교육에 이용할 수 있는 전문어휘를 선정, 제시할 것이다.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는 데 가장 유용한 방법은 빈도이다.⁴⁾ 빈도는 그 어휘가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가를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이며, 이는 그 어휘의 중요도와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3) 신명선(2004)은 국어교육을 위한 사고도구어를 선정하기 위해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예술 분야를 망라하여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그의 연구 방법은 외국인 대상 한국어교육을 위한 전문어휘 선정과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Nation(2012: 18)은 대부분의 텍스트에서 소수의 단어가 다수의 점유율을 기록하기 때문에 빈도를 기반으로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에 비해 훨씬 더 유용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일부 교육적 목적을 위해 어휘가 선정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빈도’는 중요도를 결정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빈도만으로 어휘를 선정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선정한 어휘와 빈도를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자들이 선정한 교육용 어휘와 전문어휘를 참고하여 빈도를 기준으로 교육에 필요한 어휘를 정리할 것이다.⁵⁾

3. 자연계열 텍스트의 어휘 사용 양상 분석

이 연구의 내용은 학문 목적의 언어자료를 수집하여 주요 어휘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원)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어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내용으로 학문 목적 어휘를 자연계열 어휘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말뭉치 속에서 전문어, 사고도구어, 학습어들의 사용상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뒤 자연계열 학문 목적 전문 어휘 목록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말뭉치는 21세기 세종계획의 일환으로 구축된 1500만 어절 규모의 균형말뭉치와 80만 어절 규모의 자연계열 말뭉치이다.⁶⁾

3.1. 전문 어휘 사용의 특성

Nation(2001)에 의하면 학술텍스트에 등장하는 어휘는 기본어휘(basic vocabulary), 전문어(technical vocabulary), 사고도구어(academic vocabulary), 저빈도어의 네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기본어휘는 일반적인 의사소통에서 가장 먼저 이용되는 어휘이므로 일반목적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며, 저빈도어는 자주 접할 수 없는 단어

5) Yang(1986)은 이 단어들은 빈도와 범위에 기반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Nation2001: 194, 재인용)

6) 이 연구에서 이용한 말뭉치는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주도한 21세기 세종계획의 일환으로 구축된 1,500만 어절 규모의 형태분석 균형말뭉치(말뭉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범모·김홍규(2009)를 참조할 것)와 동일한 세종계획 말뭉치 속에서 자연계열로 구분된 텍스트만을 따로 추출한 것이다.

이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학문목적 어휘 교육에서 대상으로 삼는 어휘는 전문어와 사고도구어라고 할 수 있다. Coxhead(2000)는 학문분야를 기술, 과학, 법, 상업으로 나누어 각 분야마다 7개 과목을 선정, 총 28개 과목을 대상으로 총 어휘 350만개의 말뭉치를 구축(각 영역 80만개)하고 빈도수에 따라 사고도구어 570쪽을 선정하였다. Nation(2001)은 영어 기본 어휘 2,000여 개와 Coxhead(2000)에서 선정한 570여 개의 단어족(word family)을 이해하게 되면 학술 텍스트의 90% 정도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을 위한 고빈도 학술 기본어휘 선정과 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신명선(2006)은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기본어휘, 전문어, 사고도구어를 학문목적 교육용 어휘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기본어휘는 일반적 사용어휘이고, 사고도구어는 학술분야 전반에 폭넓게 나타나는 어휘이며, 전문어휘는 특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말한다. 이중 기본어휘는 일반목적 한국어교육에서 교육에 이용되지만 사고도구어와 전문어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을 위한 적절한 어휘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⁷⁾

하지만 전문어휘를 구분하는 것은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학술적인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사고도구어는 학술분야에 전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므로 전문어나 일반어와 구분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들의 구분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언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전문어 교육에 있어서 이덕희(2003: 54)는 학문목적 학습자의 가장 높은 요구가 전공어휘 확장이라는 점을 보여 주었는데, 김정숙(2000:17-18)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전문어휘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신명선(2006: 254)은 Laufer를 참고하여 기본어휘와 사고도구어를 중점으로 전문어 학습을 병행되 대략 5000단어 수준을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영어와 비교해 볼 때 한국어 어휘의 사용이 현저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많은 어휘가 교육에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1) Nation(2012: 182, 192)

- ㄱ. 학술어휘(academic vocabulary): 여러 연구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어휘
- ㄴ. 전문어휘(technical vocabulary): 특정 주제, 영역, 학문분야에 특수하다고 인식되는 어휘

(2) 김유미 · 강현화(2008: 8)

- ㄱ. 학술기본어휘: 특정 학문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폭넓게 나타나는 어휘
- ㄴ. 학술전문어휘: 해당 학문 분야의 지식의 응결체로 ‘학문어’

(3) 신명선(2004: 17-20)

- ㄱ. 사고도구어: 특정 학문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폭넓게 나타나는 어휘 학술텍스트에 등장하는 단어 들 중 기본어휘와 전문어가 아닌 단어들. 인간의 사고 과정 그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으면서 주로 논리 및 사고를 처리하는 도구어로 사용
- ㄴ. 전문어: 특정 학문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해당 학문 분야의 지식의 응결체

용어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사고도구어(학술어)는 학문분야에 폭넓게 사용되는 어휘이며 전문어는 특정한 학문분야에서만 사용되는 어휘로 구분된다. 하지만 이들 정의만으로 학술어나 전문어를 구별하기에는 한계가 많아 보인다.

우선 다음과 같은 어휘의 경우 사고도구어라고⁸⁾ 하지만 일상적 표현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적 의사소통을 위한 학습용 어휘와 구분하기 어렵다.

8) 신명선(2004)의 사고도구어 목록 참조.

(4) 개발

- ㄱ. 토지나 천연자원 따위를 유용하게 만들
- ㄴ. 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함
- ㄷ. 산업이나 경제 따위를 발전하게 함
- ㄹ.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개발’과 같은 단어는 그 의미상 학술적인 텍스트에 폭넓게 사용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텍스트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의미 또한 학술적이라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

보다 학술적으로 보이는 ‘검증’과 같은 단어의 경우는 사고도구어인지 전문어인지 구분이 어렵다.

(5) 검증

- ㄱ. 검사하여 증명함
- ㄴ. 『법률』법관이나 수사관이 자기의 감각으로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 따위를 인식하여 증거를 조사하는 일
- ㄷ. 『철학』어떤 명제의 참, 거짓을 사실에 비추어 검사하는 일 ㄴ실증 02(實證)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검증’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일반적 의미인 (5ㄱ)과, (5ㄴㄷ)의 두 가지 전문적 의미로 기술한다. ‘검증’의 경우 대부분 학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는 사고도구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5ㄴ)과 (5ㄱ)과 같은 학문 분야별 세부적인 차이를 고려한다면 각각 전문어로 구분해야 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용어에 민감하며, 그것이 보통 사람이 볼 때, 일반적인 의미 또는 다른 학문분야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크게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선정한 전문어 목록의 광범위성을 보면 알 수 있다. 세종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전문어 선정과 대역어 연구는 각 분야별로 5000~10000여 개의 전문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계열 총 전문어는 7만여 개나 된다⁹⁾.

이처럼 상당수의 학술적 어휘는 대부분 중첩되는 사용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사용 영역의 차이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된다. Trimble(1985:129-130)은 학생들이 보통 하나의 단어가 여러 학문분야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사고도구어가 전문어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Cohen et al(1988)은 학술어휘가 어떤 때는 전문적 어휘로 어떤 때는 비전문적 어휘로 사용되어 학습자가 항상 단어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용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즉, 바꿔 말하기를 통한 어휘 결속 구조의 예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Anderson(1990) 또한 학습자들이 학문 텍스트를 접할 때 몰라서 가장 자주 확인한 단어가 학술용어였다고 보고한다. 김유미·강현화(2008)에서는 이러한 보고를 통해 현실적으로 대학 수학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이 전문 지식의 이해에서 오며 이는 전공어에 대한 이해와 직결된다고 보았으며, 또한 학생들은 대부분 어휘의 개방적 특성 때문에 전문어와 기초 어휘, 사고도구어 등을 구분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한다고 말한다. 결국 이런 점에서 이들 각각의 어휘를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은 성공적인 한국어 학습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들 어휘가 각기 다른 영역에 이용된다는 것은 결국 다의적 용법들로

9) 이공계열까지 확대하면 총 전문어 수는 17만여 개에 육박하는데, 일반적인 국어사전의 표제어 수가 50만여 개 정도임과 인문계열 전문어가 빠져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거의 대부분의 어휘가 전문어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분된다는 것이므로 다의적 용법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⁰⁾. 그렇다면 이들의 다의적 용법과 사용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6) 운동

- ㄱ. 사람이 몸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위하여 몸을 움직이는 일
- ㄴ.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힘쓰는 일 또는 그런 활동
- ㄷ. 일정한 규칙과 방법에 따라 신체의 기량이나 기술을 겨루는 일. 또는 그런 활동
- ㄹ. <물리> 물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공간적 위치를 바꾸는 일
- ㅁ. <철학> 시간의 경과에 따른 물질 존재의 온갖 변화와 발전
- ㅂ. <복한어><수학>두 점 사이의 거리와 도형의 방향을 보존하는 도형의 변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운동’의 경우 일상적 의미는 (ㄱ, ㄴ, ㄷ) 항목으로 사용되거나 전문적인 정의는 학문 분야에 따라 (ㄹ, ㅁ) 또는 (ㅂ) 항목으로 사용된다. ‘운동’이 자연계열 텍스트에 사용되는 경우 전문적 의미는 사전에 기술된 (ㄹ) 항목과 유사하며 자연계열 텍스트에서 이들 의미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1> 자연 말뭉치 속 ‘운동’의 의미 사용 양상

의미		사용비율(%)
일반적 의미	사전의미 (ㄱ)	10.29
	사전의미 (ㄴ)	2.36

10) 이민우(2011)는 다의어 교육에 있어서 의미가 변별 되는 ‘결합, 사용, 지식’이라는 세 가지의 층위의 문맥을 구분하여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다의적 의미의 변별이 결합하는 어휘의 유형에 따라 결정되므로 범주적 차이를 보이는 결합 유형을 제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사전의미 (ㄷ)	0.54
전문적 의미	사전의미 (ㄹ)	86.82

의미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 전문적 의미의 사용은 분명해 보인다. 자연계열 텍스트에서는 다른 어떤 의미보다 전문적인 의미인 (6ㄹ) 의미가 월등하게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의미 사용의 차이는 결합 사용의 분명한 차이로 나타난다.¹¹⁾

일반적 사용과 전문적 사용에서 드러나는 ‘운동’의 선행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운동’의 선행성분 결합 양상 비교

순위	자연 말뭉치	비율	균형 말뭉치	비율
1	안구	12.59%	선거	5.39%
2	상	5.59%	민주화	4.19%
3	유전성	4.90%	노동	3.28%
4	협조	4.90%	환경	3.28%
5	척수소뇌성	3.50%	농민	3.15%
6	하	3.50%	독립	2.28%
7	알파	3.15%	시민	2.28%
8	진행성	2.45%	학생	1.99%
9	다발초점성	1.75%	안구	1.87%
10	불수의적	1.75%	개혁	1.41%
11	순수	1.75%	재야	1.41%
12	프리드라이히	1.75%	반대	1.37%
13	말초	1.40%	재활용	1.33%
14	변동	1.40%	사회	1.24%
15	소뇌	1.40%	서명	1.08%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의 구분이 그렇게 명확한가라는 의심이 든다. 더우기 사고도구어 대부분은 정의와 같이 일반적인 범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의 구분은 전문어보다 훨씬 더 모호하다. 사고도구어로서 ‘운동’은 전문어로 기술된 (6ㄹ, ㄱ, ㄴ)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가. 혹은 일반적인 의미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인가.

<표 2>는 영역에 따른 선행 성분 결합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균형 말뭉치에 나타나는 ‘운동’의 의미는 대부분 (5L)이며 일반적인 어휘와 함께 사용되지만, 이와는 달리 자연계열 말뭉치에서는 특수한 용어들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많다.

이러한 결합 사용의 차이는 술어 결합에서도 볼 수 있다.

<표 3> ‘운동’의 술어 결합 양상 비교

순위	자연 말뭉치	비율	균형 말뭉치	비율
1	하-	17.83%	하-	14.28%
2	일어나-	7.01%	벌이-	6.16%
3	관여하-	4.46%	대하-	2.82%
4	의하-	4.46%	전개하-	2.26%
5	대하-	3.82%	시작하-	2.00%
6	이-	2.55%	펴-	2.00%
7	시행하-	1.91%	통하-	1.85%
8	일으키-	1.91%	참여하-	1.59%
9	항진시키-	1.91%	일어나-	1.54%
10	계속되-	1.27%	펼치-	1.49%
11	관장하-	1.27%	계속하-	1.34%
12	구분하-	1.27%	동참하-	1.28%
13	되-	1.27%	나서-	1.18%
14	몇-	1.27%	있-	1.13%
15	있-	1.27%	되-	1.08%

빈도 순위 상위의 술어들 가운데 유사한 예는 ‘하-, 일어나-, 대하-, 되-, 있-’ 정도뿐인데 술어 사용이나 문장 구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의미가 분명히 구분되는 동일한 단어의 일반적 사용과 전문적 사용은 꽤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2).

이와는 달리 ‘기능’과 같은 경우는 의미와 사용이 ‘운동’과 같은 예보

12) 다만 전문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월등하지만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사용의 차이가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점이기 때문이다.

다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이 단어는 사전에 전문적인 의미로 기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의 분할도 많지 않다.

<표 4> ‘기능’의 선행 성분 결합 양상

순위	자연 말뭉치	비율	균형 말뭉치	비율
1	갑상선	3.33%	역	6.74%
2	인지	3.15%	견제	2.81%
3	방광	2.04%	다	2.43%
4	대뇌	1.94%	순	2.34%
5	뇌	1.85%	간	2.15%
6	자율신경계	1.85%	시장	1.68%
7	자율신경	1.67%	교육	1.59%
8	반사	1.48%	감시	1.31%
9	운동	1.48%	조정	1.12%
10	검색	1.39%	감독	1.03%
11	지원	1.39%	검사	1.03%
12	인식	1.30%	뇌	1.03%
13	차단	1.30%	사회	1.03%
14	그래픽	1.20%	성	1.03%
15	전송	1.20%	장예	1.03%

하지만 앞서 ‘운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용 영역에 따른 결합 양상의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난다. 말뭉치에 나타난 예들에서 ‘기능’의 의미가 세분화되지 않았으며, 직관적으로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전문적 사용은 특수한 결합 양상으로 나타나며 유형적 차이를 보이는 점에서 사용상의 구분을 가능하게 해 준다.

‘운동’만큼은 아니지만 술어 결합양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차이를 보여준다.

<표 5> ‘기능’의 술어 결합 양상

순위	자연 말뭉치	비율	균형 말뭉치	비율
1	제공하-	5.51%	하-	9.66%
2	수행하-	4.16%	수행하-	5.83%
3	가지-	4.04%	가지-	3.39%
4	사용하-	3.43%	있-	3.29%
5	있-	3.30%	발휘하-	2.64%
6	하-	3.18%	담당하-	2.54%
7	이용하-	2.94%	갖-	2.49%
8	갖-	2.45%	대하-	2.49%
9	대하-	2.33%	갖추-	2.44%
10	갖추-	2.08%	강화하-	1.89%
11	발휘하-	1.96%	떨어지-	1.20%
12	지원하-	1.71%	상실하-	1.05%
13	나타내-	1.35%	다하-	0.95%
14	없-	1.35%	있-	0.95%
15	추가하-	1.10%	크-	0.95%

이는 전문적 영역과 일반적 영역 사이의 술어 사용의 차이를 말해준다. 위의 두 경우와는 달리 ‘환자’와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의미적으로도, 사용상으로도 전문적인 사용과 일반적인 사용이 구분될 것이라고 기대되지 않는다¹³⁾.

(7) ㄱ. (의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

 ㄴ. (친구가) 너는 환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니?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환자’와 전문적인 ‘환자’가 구분되는가? 직관적인 의미 구분이 어려운 만큼 실제 사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 이들은 일반어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13) ‘환자’는 자연계열 전문용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표 6> ‘환자’의 선행 명사 결합 양상

순위	자연 말뭉치	비율	균형 말뭉치	비율
1	당뇨병	6.01%	암	5.45%
2	간질	4.47%	간질	2.40%
3	근무력증	3.77%	응급	2.40%
4	일부	3.49%	백혈병	2.33%
5	암	3.35%	정신	1.82%
6	남자	3.21%	치매	1.82%
7	여자	2.51%	에이즈	1.53%
8	증후군	2.23%	입원	1.53%
9	치매	2.23%	어린이	1.45%
10	말기	2.09%	당뇨병	1.38%
11	고혈압	1.96%	말기	1.31%
12	경화증	1.82%	노이로제	1.02%
13	노인	1.82%	외래	1.02%
14	뇌졸중	1.82%	일부	0.95%
15	중독	1.82%	나병	0.87%

결합 양상의 차이도 병명의 종류의 차이일 뿐 명사 유형의 차이는 거의 없어 보인다. 술어 또한 순위의 차이는 있지만 상위 술어들 대부분이 동일하다.

<표 7> ‘환자’의 서술어 결합 양상

순위	자연 말뭉치	비율	균형 말뭉치	비율
1	대하-	8.38%	대하-	4.78%
2	돌보-	2.73%	위하-	2.61%
3	발생하-	2.14%	있-	2.17%
4	되-	1.75%	보-	2.11%
5	발견되-	1.75%	치료하-	2.05%
6	위하-	1.75%	많-	1.67%
7	있-	1.75%	돌보-	1.43%
8	치료하-	1.75%	되-	1.30%
9	아니-	1.56%	아니-	1.24%
10	어떻-	1.56%	발생하-	1.18%
11	호소하-	1.56%	생기-	0.68%
12	많-	1.36%	늘-	0.62%

13	사용하-	1.36%	돕-	0.62%
14	늡-	1.17%	진료하-	0.50%
15	보-	1.17%	크-	0.50%

사실 ‘환자’라는 단어는 일반적 텍스트보다 전문 텍스트에서 월등히 많이 이용된다. 또한 병명의 차이를 보여주는 결합 양상은 전문 텍스트에서 보다 전문적인 병명이 선행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동일한 의미라고 하더라도 전문적 사용에서 중요한 것은 결합 사용 양상이다. 이들은 다양한 어휘와 결합하여 특수한 용어로 이용된다. 그렇다고 하여 ‘환자’라는 단어 자체가 특별하거나 완전히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표 8> ‘운동, 기능, 환자’의 텍스트별 사용 차이

	자연 말뭉치		균형 말뭉치	
	빈도순위	점유율(누적점유율)	빈도순위	점유율(누적점유율)
운동	84	0.12(23.27)	163	0.068(34.06)
기능	36	0.20(15.96)	452	0.028(46.5)
환자	21	0.29(12.43)	514	0.024(48.11)

‘환자’가 의미상으로 전문적이거나 일반적인 차이를 갖기 어려운 것처럼, ‘운동’이나 ‘기능’의 의미 또한 마찬가지로 일상 언어 사용의 예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분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 ‘전문적’ 사용이라는 것은 ‘추론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분야에서 특정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말하므로 ‘교육’을 통해 익혀야만 한다. ‘전문어’는 항상 일반적인 사용과 그 의미가 다르다. 다만 그 차이에 있어서 연속성을 가질 뿐이다. 이들의 차이는 일반적인 다의적 양상과 마찬가지로 장르상의 차이와 함께 의미범위의 제약을 갖는다. 특히 이러한 특성은 결합구조의 차이를 드러낸다. 즉 중요한 것은 의미의 전문적 구분이 직관적으로 어렵거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들이 사용되는 양상은 차이를 갖는다는 것이다. 어휘교육이 단순히 어휘의

형태와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양상을 알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전문어 교육의 핵심이 된다.

Nation(2001)은 전문어를 전문성(technicalness)의 정도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면서 특별한 학문분야에서 특정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만 전문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이 선정한 어휘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적 사용 의미와 다르지 않다면 교육용 전문어휘에 포함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의미 특수성이 없다는 것만으로 전문어에서 배제하기도 어렵다. ‘의미’라는 것 자체가 연속적인 양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어휘가 구분되는 방식은 다의구분과 마찬가지로 장르, 맥락, 의미범위, 제약, 결합구조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결합제약이나 결합구조의 차이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점으로 교육에 이용하기 용이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전문어로 구분할 수 있는 어휘는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8) ㄱ. ‘환자’와 같이 전문어와 일반어의 의미가 구분되지 않으며 사용 양상 또한 일상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경우
- 나. ‘기능’과 같이 사용 빈도가 높으며 사용역에 따라 결합 양상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지만 의미 구분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
- 다. ‘운동’과 같이 일상적 의미와 전문적 의미가 구분되며 사용 또한 다른 경우
- 르. ‘소포체’와 같이 일상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전문적인 의미로만 사용되는 경우

이들 중 첫 번째 유형은 일반적인 학습용 어휘로 다루어도 문제가 없으며, 마지막 유형은 대부분 사용 빈도나 범위가 현저히 작다는 점에서 교육용 어휘로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다.¹⁴⁾ 전문어와 일반어가 구분되지

않는다면 굳이 전문어 목록으로 선정하여 따로 교육할 필요가 없으며 전문적으로만 해석되는 경우는 사용이 분명하므로 목록화하여 제시하면 된다.

문제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유형과 같이 영역의 구분이 애매하거나 완전히 다른 경우이다. 이들 어휘는 사용 빈도가 높으며 교육적 측면에서도 중요한데, 이러한 어휘의 경우는 학습자들이 어휘 사용과 이해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목록화하여 교육하되 중첩되는 어휘를 구분하여 교육 시 주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2. 어휘 사용 양상

자연계열 어휘 사용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사용 양상과 비교하여 보았다. 먼저 두 말뭉치 속 품사별 사용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9> 자연 말뭉치와 균형 말뭉치 어휘 비교

품사	자연 말뭉치 접유율(%)	균형 말뭉치 접유율(%)
일반명사	47.86	43.14
고유명사	1.10	4.54
의존명사	5.69	6.53
수사	0.28	0.71
대명사	1.44	3.24
형용사	7.18	5.84
동사	16.77	21.02
보조용언	3.95	4.48
관형사	2.55	2.79
일반부사	4.35	5.48
접속부사	2.14	0.70

14) 이들 어휘는 매우 한정적이고 협소하게 사용되므로 교육 효과를 고려할 때 교육 대상으로 선정하기 어렵다. 만약 전문어 말뭉치 상에서 빈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이들 또한 교육을 위한 어휘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감탄사	0.02	0.20
외국어	6.49	0.70
한자	0.17	0.63
계	100	100

자연 말뭉치에서 일반명사의 사용이 높은 것은 전문어휘의 대부분이 일반명사에 속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사용 비중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반명사를 제외한 다른 명사류들의 사용은 낮은 편이다. 용언의 경우 형용사의 사용은 높으며 동사의 사용은 낮다. 이는 학술 텍스트에서 동작보다는 상태에 대한 설명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학술 텍스트는 객관적 진술이 중심이기 때문에 주관적 양상을 표현하는 보조용언이나 일반부사의 사용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장 간 연결이나 결속을 위한 접속부사의 사용은 현저히 높다. 외국어 특히 영어의 사용이 현저히 높지만, 반대로 한자 사용은 매우 낮은 것 또한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표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자연 말뭉치의 어휘적 다양성은 균형 말뭉치에 비해 낮은데¹⁵⁾, 이는 특정한 용어들이 주로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 10> 주요 어휘 사용 비교

유형	자연 말뭉치 점유율(%)	균형 말뭉치 점유율(%)
전문어	10.02	3.73
학습어	53.54	71.48
사고도구어	2.25	2.02
중복 사용	6.62	7.17
	72.43	84.39

Nation(2001)은 영어 어휘 사용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학술텍스트에서 사용되는 어휘 유형을 전문어 3%, 사고도구어 8%, 기본어휘 80%이

15) ‘type/token’비율은 자연 말뭉치가 0.09%, 균형말뭉치가 0.021이었다.

상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실제 한국어 학술 텍스트에서는 이러한 예상과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기타 어휘의 사용이 현저히 높아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가 한국어 어휘 교육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또한 전문어와 일반 학습어가 중복되는 경우가 7%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자연 말뭉치에서 전문어휘 사용비율은 매우 높지만 이와는 반대로 학습어휘 사용은 균형 말뭉치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자연계 텍스트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어휘가 더 많다는 것인데 전문어휘와 학습어휘를 합쳐도 70%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 어휘만으로는 자연계열 텍스트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외국어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6%라는 자연계 텍스트의 외국어 사용을 고려할 때 전문어휘 교육에 있어서 영어 대역어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 말뭉치 속에서 이용되는 어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자연 말뭉치 어휘 사용 양상

	빈도	유형	유형/빈도	점유율(%)
전문어휘	78,541	5,165	0.065	10.02
학습용어휘	419,858	4,711	0.011	53.54
공통어휘	51,934	438	0.008	6.62
소계	550,333	10,314	0.018	70.18
기타 교빈도어	39,400	160	0.004	5.02
외국어	49,504	15,430	0.311	6.31
소계	88,904	15,590	0.315	11.33
총계	639,237	25,904	0.04	81.51

자연 말뭉치의 어휘 사용 수치는 영어(Coxhead 2000 : 224) 학술어휘

연구와는 차이를 보여준다. 영어의 경우 과학 분야 말뭉치 속에서 570족 학술어휘는 9.1%가 사용되는데 이에 비해 한국어 자연 텍스트에서는 훨씬 다양한 어휘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⁶⁾. 이를 고려하면 학습 어휘의 수 또한 영어에 비해 더 높게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어에서 어종의 차이가 많아지는 것은 고유어와 한자어의 이중체계에 외국어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번역하는 등 중첩된 어휘 사용양상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⁷⁾.

전문어휘 가운데 100회 이상 출현하는 고빈도 전문어휘는 279종으로 전체 텍스트의 10% 정도 비율을 차지한다. 이들 고빈도 전문어휘는 자연계열 학습용 전문어휘의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된다¹⁸⁾.

<표 12> 순위별 자연계 전문어휘 사용 비율

빈도순위	빈도	점유율(%)	누적점유율(%)	
1	100	2270~222	6.18	6.18
2	200	~133	2.13	8.31
3	300	~95	1.42	9.73
4	400	~68	1.04	10.77
5	500	~56	0.79	11.56
6	600	~46	0.65	12.21
7	700	~37	0.52	12.73
8	800	~31	0.43	13.16
9	900	~26	0.36	13.52
10	1,000	~23	0.31	13.83
11	1,500	~12	1.06	14.89
12	2,000	~8	1.68	15.51
13	3,000	~3	0.64	16.15

16) Coxhead는 단어족을 이용한 것이므로 개별 어휘를 이용한 이 연구와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17) 문제는 텍스트 속에서 외국어 특히 영어를 그대로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들은 반드시 영어를 알아야만 자연계열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가 가능하다.

18) 구체적인 목록은 부록으로 첨부함.

14	4,000	~2	0.31	16.46
15	5,000	~1	0.14	16.6

또한 사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전문어휘로 선정된 어휘 이외의 고빈도 어들도 일부 교육용 어휘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외국어를 제외한 기타 고빈도어는 104종으로 전체 텍스트의 5%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어휘는 필요에 따라 자연계열 학문목적 교육용 어휘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용 어휘와 중복되는 자연계 전문어휘는 총 438종으로 이들은 사고도구어의 강력한 후보가 되며, 이들에 대한 교육은 결함맥락을 제시함으로써 일반적 사용이나, 사고도구어로의 사용과 차별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용언의 사용의 경우는 매우 한정적이며 문장 종결형으로 사용된 예들은 더욱 한정적이어서 특정한 부류들을 중심으로 문장 구성 유형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 어휘는 대부분 명사가 중심이기 때문에 주요 용언을 확인하기 위하여 술어만 따로 추출하여 비교하였다¹⁹⁾. 자연계열 말뭉치 속 용언은 총 9,944종 218,421회 사용되었으며 이는 총 어휘 사용 빈도의 27.9%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표 13> 용언 사용 양상

	자연 말뭉치			균형 말뭉치	
	빈도	유형	유형/빈도	점유율(%)	점유율(%)
전문어휘	3,575	63	0.0176	1.64	0.76
학습어휘	169,907	1,569	0.0092	77.79	83.31
기타 고빈도어	9,201	41	0.0044	4.21	11.15
계	173,482	1,632	0.0091	83.64	95.22
균형2000				91.60	88.27

자연계열 텍스트 속에서 용언의 비중은 28% 정도를 차지한다. 이중

19) 67,408개의 자연계열 전문어휘 목록 가운데 술어는 138개에 불과하였으며 이중 학습용어휘와 중복되지 않는 순수 전문어휘 술어는 124개였다.

학습용어휘와 전문어휘 용언이 79% 정도 사용되며 이외의 기타 고빈도 어휘(출현빈도 100회 이상)를 합하면 총 용언의 84%의 사용률을 보여준다. 이는 균형 말뭉치의 95% 사용보다 낮은 수치인데, 이와는 반대로 1500만 어절 균형 말뭉치 빈도순위 2000에 속하는 용언의 사용은 자연 말뭉치에서 91%, 균형 말뭉치에서 88%로 자연 말뭉치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빈도 순위 상위 용언이 자연 말뭉치에서 더 한정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차이는 문장 종결형으로 사용되는 경우 더 커진다.

문장 종결형으로 이용된 용언은 다음과 같다.

<표 14> 문장 서술어 사용 비교

	자연 말뭉치 점유율(%)	균형 말뭉치 점유율(%)
전문어휘	0.50	0.16
학습용어휘	52.31	62.78
계	52.81	62.94
균형2000	93.22	85

자연 말뭉치에서 문장 종결형으로 사용된 서술어는 5,332종 51,853개로 이중 22종의 어휘가 50%의 사용을 차지하면서 주요 서술어로 이용되고 있다. 이들 22종의 어휘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20)

<표 15> 상위 50% 문장 종결형 술어 목록

어휘	점유율	누적점유율
있/VA	11%	11%
것/NNB+이/VCP	6%	17%
있/VX	5%	23%
하/VX	5%	28%

20) 세종 형태분석 말뭉치 약호 설명: NNB(의존명사), VV(동사), VA(형용사), VX(보조동사), VCP(긍정지정사), VCN(부정지정사)

없/VA	3%	30%
되/VX	2%	33%
하/VV	2%	35%
않/VX	2%	37%
되/VV	2%	39%
때문/NNB+이/VCP	1%	41%
일어나/VV	1%	42%
좋/VA	1%	43%
아니/VCN	1%	43%
부르/VV	1%	44%
말하/VV	1%	45%
나타내/VV	1%	46%
나타나/VV	1%	46%
같/VA	1%	47%
필요하/VV	1%	48%
많/VA	1%	48%
발생하/VV	1%	49%
보이/VV	1%	50%

이들 서술어가 구성하는 문형들을 정리한다면 자연계열 학문목적 학습자들의 전문적 언어사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용을 보이는 형용사 ‘있-’의 사용 양상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²¹⁾

<표 16> ‘있다’의 문형 사용 양상

문형	자연 말뭉치	균형 말뭉치
N이 있-	16.17%	22.71%
N에 N이 있-	8.78%	4.18%
N에서 N이 있-	6.38%	0.86%
N이 N에 있-	12.06%	13.97%
N이 N이 있-	1.44%	1.36%

21) 일반적인 텍스트와 문형의 사용도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문화관광부 한국어세계화재단의 한국어 문형 사전 개발 보고서에서 제시한 ‘있다’의 문형 사용에서는 ‘N에게 N이 있다’가 54.75%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N이 있다’(18.5%), ‘N이 N에 있다’(10.53%), ‘N에 N이 있다’(8.11%) 등의 순이었다.

N에게 N이 있-	1.23%	2.20%
N으로 N이 있-	11.08%	0.03%
V(으)르 수 있-	40.98%	35.96%
계	98.12	81.27

전문적 텍스트 속에서 ‘있다’의 문형은 보다 한정적으로 사용되며 특정한 문형들의 사용이 균형 말뭉치에 비해 월등히 많이 사용된다. 특히 균형 말뭉치는 이곳에 제시한 8개의 기본 문형 이외에 다른 더 다양한 문형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언 사용에 있어서도 명사의 사용과 마찬가지로 사용상의 차이를 볼 수 있다. 특히 술어가 구성하는 특정한 구성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들이 구성하는 문형의 차이는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

4. 결론

이 연구는 자연계열 텍스트의 어휘 사용 양상을 분석, 정리한 것으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품사별 사용에 있어서 자연 말뭉치는 균형 말뭉치에서보다 일반 명사의 사용과 형용사의 사용이 높으며, 또한 접속부사의 사용이 높았다. 특히 영어의 사용이 현저히 높았는데 이는 자연계 전문어휘 교육에 있어서 영어 대역어 제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사용빈도 100회 이상의 고빈도 전문어휘는 총 279종이며, 일반 고빈도 어휘는 104종이었다. 이들 어휘는 자연계 말뭉치 속에서 15% 정도 사용된다. 따라서 이들 383종의 어휘를 우선적 자연계열 교육용 전문어휘로 선정하여 교육에 이용할 수 있다.

학습용 어휘와 중복되는 자연계 전문어휘는 총 438종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은 결합팩트를 제시함으로써 일반적 사용이나, 사고도구어로의 사용과 차별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어들은 전문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월등하지만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학습어휘와 동일한 형태를 가진 어휘라도 전문분야의 특수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해야 한다. 특히 범위와 맥락을 한정하여 다의적 의미 양상을 제시한 후 전문의미를 용법을 중심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고급단계에서는 확장 양상에 따른 결합 양상을 구분함으로써 가능한 의미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어의 사용은 매우 한정적이며 문장 종결형으로 사용된 예들은 더욱 한정적이어서 특정한 부류들을 중심으로 문장 구성 유형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서술어의 경우 일반적 사용과 다른 문형 사용 양상을 보이므로 전문 텍스트 속에 이용되는 용어별 주요 문형들을 추출, 정리하여 교육에 이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학문목적 한국어 어휘교육에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어휘 사용의 차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맥락을 제시하는 것이다. 학습자에게 가장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결합맥락은 형태·통사적 사용을 통해 제시할 수 있다. ‘운동’의 경우 (6ㄱ)의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하다’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식어는 ‘가벼운, 지나친, 격렬한’ 등 운동의 강도를 표현한다. 또한 ‘근육, 팔, 몸’ 등의 신체 부분이 선행명사로 이용된다. (6ㄴ)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벌이다, 시행하다, 펼치다’와 같은 서술어가 주로 이용되며 수식어로 ‘~하는’과 같은 동작이나 ‘선거, 결성’과 같은 서술성 명사가 주로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6ㄷ)과 같이 전문용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운동’이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일으키다, 일어나다, 계속되다’와 같은 서술어로 이용된다. 또한 ‘관여하다, 의하다, 대하다’나 ‘관찰하다, 참고하다’와 같은 서술어와도 많이 이용된다. 다른 무엇보다 자연계열 텍스트에서는 전문 용어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선행명사들은 특히

‘진행성, 일과성’과 같은 ‘~성’이 결합하는 명사나 ‘미주, 안구, 조화’와 같은 운동의 유형을 나타내는 전문어들과 결합이 두드러졌다. 후행명사로는 ‘상태, 능력, 이상, 반응, 장애’등의 명사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처럼 일반적인 사용과 구분되는 결합 사용 양상을 제시하여 교육에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자연계열 학문 목적의 한국어 학습에 필요한 구체적인 어휘 항목들을 설정하고 이들의 표현 양상을 정리, 체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어휘 유형, 형태, 의미, 통사, 화용 정보와 어휘 관계 등 학습자에게 어떠한 어휘 정보를 어떻게 줄 것인가를 제시하는 연구로 이어지길 바란다²²⁾.

<참고 문헌>

- 강지현(2007),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상경계열 학문용 기본어휘 선정,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남예(2008), 학문 목적 외래어 목록 선정 연구, <한국어 교육> 21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59쪽-86쪽.
- 김선숙(2008), 학문목적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학술도구어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유미·강현화(2008), 학문목적 학습자를 위한 학술 전문어휘 선정 연구 -한국어, 문학, 경영학, 컴퓨터공학 전공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19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쪽-24쪽.
- 김유정(1999),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본 한국어 학습자들의 인식, <한국어 교육> 제10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49쪽-60쪽.
- 김은영(2008), 한국어 교육용 학술어 선정과 공기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2) 이러한 연구가 장기적으로 학문 목적의 글뿐만 아니라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학습 목적에 따른 어휘 분석 작업으로 확대된다면 학습자 유형에 따른 어휘 교육 내용의 체계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학습자별 한국어 교육 방법론을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 김정숙(2000), 학문적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 교육> 제11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쪽~20쪽.
- 김지영(2004), 한국어 어휘 교육 항목 선정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 교육> 15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93쪽~114쪽.
- 문금현(2010), 한국어 어휘 교육의 현황과 과제, <언어와 문화>, 6권 1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09쪽~135쪽.
- 신명선(2004), 국어 사고도구어 교육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신명선(2006), 학문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육의 내용 연구, <한국어 교육> 17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37쪽~264쪽.
- 유해준(2007),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본 어휘 선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민우(2011), 의미 확립 단계를 이용한 한국어 다의어 교육 방안, <언어학 연구> 22호, 한국중원언어학회, 163쪽~177쪽.
- 이민우(2012), 반의관계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이중언어학> 49호, 219쪽~242쪽.
- 이혜영(2001),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 18호, 이중언어학회, 279쪽~301쪽.
- 임철성(2002), 초급 한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14호, 국어교육학회, 355쪽~385쪽.
- 조현용(1999), 한국어 교육용 기본어휘 선정에 관한 연구, <고황논집> 25호,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47쪽~66쪽.
- Brown, H. D. 1994., *Teaching by Principles-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Coxhead, A. 2000, A New Academic Word List, TESOL Quarterly, 34-2, pp. 213~238.
- Coxhead, Essentials of Teaching Academic Vocabulary, 2006, Houghton Mifflin Company.
- Hunt, A. & Beglar, D. 1998, Current Research and Practice in Teaching Vocabulary, In Richards, J. C. & Renandya, W. A. (Eds.) 2002,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259
- Johns, A. M. 2001, English for Specific Purpose (ESP): Tailoring Courses to Students Needs and to the Outside Worl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3rd), Heinle & Heinle, pp. 29-42.
- Jordan, R. R. 1997,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A guide and Resource Book for Teach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tion, I. S. P. 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now, M. A. 1984, Teaching language through content. In M.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3rd), Heinle & Heinle, 2001, pp. 315-328.

Xue, G & Nation, I. S. P., A University Word List, *Language Learning & Communication* 3, pp. 215~229.

이민우(Lee MinWoo)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신본관 506호

전화번호: 010-8945-5016

전자우편: minu@hufs.ac.kr

접수일자: 2013년 8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3년 10월 11일

게재확정: 2013년 10월 16일

부록

자연계열 고빈도 전문어휘 목록23)

2	가설 <i>hypothesis</i>	3	수정 <i>emendation</i>	2	임신 <i>gestation</i>	1	초기 <i>initial stage</i>
1	감염 <i>infection</i>	3	수정란 <i>fertilized ovum</i>	3	입 <i>os</i>	3	최대 <i>maximum</i>
2	개념 <i>concept</i>	2	수축 <i>shrinkage</i>	3	입자 <i>particle</i>	1	출혈 <i>congestion</i>
2	거미 <i>spider</i>	3	수치 <i>numerical</i>	3	자궁 <i>uterus</i>	1	치료 <i>treatment</i>
1	결핍 <i>deficiency</i>	3	스핀 <i>spin</i>	1	자극 <i>irritant</i>	1	치매 <i>dementia</i>
2	결함 <i>defect</i>	2	식이 <i>diet</i>	2	자료 <i>data</i>	2	침범 <i>invasion</i>
3	경과 <i>catamnesis</i>	1	신경계 <i>nervous system</i>	2	자리 <i>position</i>	1	카드 <i>card</i>
2	경로 <i>route</i>	1	신경병증 <i>neuropathy</i>	2	자세 <i>posture</i>	1	컴퓨터 <i>computer</i>
2	고혈압 <i>hypertension</i>	2	신경섬유 <i>nerve fiber</i>	3	자연 <i>nature</i>	3	코드 <i>code</i>
2	근 <i>root</i>	3	신경세포 <i>nerve cell</i>	2	자유 <i>free</i>	1	크기 <i>size</i>
3	근육병증 <i>myopathy</i>	2	신장 <i>renal</i>	1	작업 <i>working</i>	3	태아 <i>fetus</i>
3	기전 <i>mechanism</i>	3	아미노산 <i>amino acid</i>	1	작용 <i>action</i>	3	토코페롤 <i>tocopherol</i>
3	기형 <i>anomaly</i>	3	악성 <i>malignant</i>	2	잠 <i>sleep</i>	2	통신 <i>communication</i>
1	난자 <i>ovum</i>	1	안 <i>inner</i>	2	장기 <i>organ</i>	1	통증 <i>pain</i>
3	납 <i>lead</i>	2	안구 <i>eyeball</i>	1	장애 <i>disability</i>	3	투여 <i>administration</i>
3	네트워크 <i>network</i>	2	알코올 <i>alcohol</i>	3	장점 <i>dash</i>	1	특성 <i>characteristic</i>
2	노출	1	압	2	장치	2	특징

23) 번호는 <표4>의 빈도순위 항목이며 영어 대응어는 세종계획 전문용어 정비 사업을 통해 제시된 것을 이용하였다. 이들 중 학습어와 중복되는 경우 **볼드체**로, 사고도구어와 중복되는 어휘는 **이탤릭체**로 표시하였다.

	<i>exposure</i>		cancer		apparatus		<i>specific</i>
3	노화	3	압력	2	장해	3	특징
	aging		pressure		hindrance		characteristic
2	농도	1	약	1	저작권	1	파일
	concentration		pharmacion		copyright		file
3	뇌신경	1	약물	3	전문	2	팔
	cranial nerve		drug		message		arm
2	뇌척수액	1	약사	2	전문가	2	펜티엄
	cerebrospinal fluid		pharmacist		professional		Pentium
3	뇌파	1	양	3	전위	1	평가
	brain wave		quantity		electric potential		evaluation
3	단백	1	양상	2	전자	2	평가하다
	protein		pattern		electron		evaluate
1	단백질	1	언어	1	점	3	폐
	protein		language		point		closed
1	당노병	2	얼굴	1	정도	1	포함하다
	diabetic		face		rate		involve
1	대뇌	3	업그레이드	1	정보	2	표
	cerebrum		upgrade		information		table
1	대상	2	에너지	1	정상	2	표현
	object		energy		stationary		representation
3	대조군	1	여성	2	정신	3	표현하다
	control group		female		mind		express
1	데이터	1	연구	1	정자	3	프로젝트
	data		research		spermatic		project
1	독성	3	열	3	제도	3	피
	toxicity		heat		system		blood
2	돌연변이	2	염색체	1	제품	2	피로
	mutation		chromosome		product		fatigue
3	동공	3	염증	3	조건	1	피부
	pupil		inflammation		condition		dermal
1	동맥	1	영양	2	조사	2	피질
	artery		nutrition		survey		cortex
3	두개내	3	영양	2	조절	1	하드디스크
	intracranial		nutrition		accommodation		hard disk
2	드라이브	1	영역	1	조직	2	하드웨어
	drive		range		tissue		hardware
3	디지털	1	예	3	존재	2	한쪽

	digital		example		existence		unilateral
2	리눅스	2	오른쪽	1	존재하다	3	함량
	Linux		right		exist		content
1	마비	2	오존	1	종류	2	합성
	paralysis		ozone		modality		<i>synthesis</i>
3	마우스	2	외부	1	종양	2	항목
	mouse		external		neoplastic		<i>item</i>
3	멀티미디어	2	외상	3	주변	3	항체
	multimedia		trauma		peripheral		antibody
1	메모리	2	왼쪽	2	주요	3	핵
	memory		left		principal		nucleus
3	면역	2	요소	2	주위	2	행동
	immunity		<i>urea</i>		surroundings		behavior
1	반사	2	요인	2	주체	2	행위
	reflection		<i>factor</i>		<i>subject</i>		action
2	발병	1	용량	2	주파수	1	현상
	onset		capacity		frequency		phenomenon
1	발작	2	용어	2	죽음	1	혈관
	crisis		terminology		death		blood vessel
3	방사선	3	우울증	2	줄	3	혈류
	radioactive rays		depression		joule		blood flow
3	변성	2	우주	2	중독	2	혈압
	voice mutation		space		intoxication		blood pressure
2	보행	1	운동	2	중심	1	혈액
	locomotion		motion		core		blood
1	복제	2	운영체제		쥐	3	혈장
	replication		Operating System	1	rat		blood plasma
2	부종	3	원	1	증가	3	혈청
	edema		circle		growth		serum
3	분류	1	원인	1	증상	2	형
	<i>classification</i>		cause		symptom		Type
2	분자	1	위	1	증후군	2	형성
	numerator		stomach		syndrome		formation
2	상호작용	1	위치	3	지구	3	형식
	interaction		position		earth		form
3	설정	2	위험	1	지방	1	형태
	<i>setup</i>		risk		fat		conformation
2	섭취	3	유도	3	지역	1	호르몬
	ingestion		lead		regional		hormone

1	성능 performance	1	유전자 gene	1	진단 <i>diagnosis</i>	2	호흡 respiration
2	성분 <i>component</i>	2	음식 meal	2	진전 <i>tremor</i>	2	혼수 narcois
3	세균 bacteria	3	응용 <i>application</i>	3	진통제 analgesic	3	화합물 compound
1	세포 cell	1	의사 doctor	1	질병 illness	3	확률 <i>probability</i>
1	소견 finding	1	의식 consciousness	1	질환 dyscrasia	1	환경 environment
2	소뇌 cerebellum	1	이론 <i>theory</i>	1	집 sheath	1	환자 patient
2	소변 urine	1	이름 name	3	집단 population	2	활동 action
2	소실 disappearance	1	이상 <i>ideal</i>	1	징후 sign	2	활성 activation
2	소아 child	1	이유 delactation	1	차이 <i>difference</i>	1	효과 <i>effect</i>
2	속하다 belong	2	인자 <i>factor</i>	1	참조 <i>reference</i>	2	효소 enzyme
1	손상 injury	1	인터넷 internet	3	창 window	3	흐름 flow
2	쇠약 emaciation	2	인터페이스 interface	3	책 book	3	흙 soil
3	수두증 hydrocephalus	1	일 work	2	처리 <i>processing</i>	2	흡수 absorption
3	수막염 meningitis	1	일으키다 to raise	1	척수 spinal cord	1	힘 force
2	수용체 acceptor	3	읽다 to read	3	초 second		